

# 화해의 사역

고린도후서 5:16-21

2022년 6월 19일 설교

클레망 텐도, 목회 인턴.

오늘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의 25번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읽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답을 읽을 것입니다.

## 질문 25: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은혜롭게 전가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절은 화해에 관한 것입니다. 화해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고통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화해는 치유를 가져오고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화해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8에서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

아담과 이브의 죄는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와 자신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의 초점입니다.

고린도후서 5:16-21을 함께 읽어봅시다.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늙은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왔다.

18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을 구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거의 뵈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신뢰하여 구합니다. 아멘.

이 구절이 화해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박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람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평범한 사람은 없다.

당신은 단순한 필사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 이것들은 필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하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들, 즉 불멸의 공포나 영원한 영광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범주에 따라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범주에 의해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성상 우리는 모두 죄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경고하신 대로 죽어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를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집을 짓거나 아주 오래된 집을 개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두 프로젝트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것이 종종 더 쉽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집을 개조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종종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복원된 오래된 집은 빈 땅 위에 지은 집보다 더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즉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좋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세요. 그 느낌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벗들이여, 부서진 최악된 피조물이 다시 창조될 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무로부터의 창조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죄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카이노스는 우리 구절에서 ”새롭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창조가 옛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의 죄 많은 옛 자아를 대치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옛 생활 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활동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십니다. 우리는 빛을 지고 있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빛을 갠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멋진 경험을 하면 공유하고 싶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30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30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오고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경험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화해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절박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입니다. 그는 죄를 처벌받지 않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보았듯이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탕감되었고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1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12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평을 이루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입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호소하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후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사로 만듭니다. 그분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삶과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같은 메시지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2월에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사로서의 책임을 그를 신뢰했습니다.

대사는 사명과 메시지로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상사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서로 화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취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메시지와 사역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하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21절은 말합니다.

21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일어난 큰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없으신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4-6에서 이 큰 교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4 “그는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는 자로 여겼노라

5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에게 형벌이 있어 우리에게 화평을 얻었고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 우리는 양처럼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되심으로 그는 죄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을 그분의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의미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졌고 그의 의의 흠 없는 완전함이 우리에게 돌려켜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친구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화해의 대사가 되십시오.

저는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UN)은 20년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UN이 평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반군이 제 고향인 고마를 2주 동안 점령했습니다. 유엔 대표는 유엔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유엔의 임무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평화 유지군은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했을 때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엔의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임무는 “평화 유지”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콩고나 분쟁 중인 다른 국가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소망과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거룩한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는 화해의 대사관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인류의 핵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문제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나는 Bob이라는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적대적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나랑 싸울래? 당신은 항상 당신의 외모로 나를 지배하고 싶어!" "아니." 내가 말했다. "그냥 인사하려고 쳐다봤어." 나중에 나는 Bob이 말기 질환과 다른 많은 심리적 문제로 지배되는 과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돌보는 신이라면?" 이에 받은 화가 나서 대화 중간에 자리를 뒀다.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밥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밥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후 밥과의 관계도 크게 바뀌었다. 신에게 영광! 밥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밥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와도 화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여기에는 이웃, 가족, 학교 친구 및 동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와 평화를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1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것을 무자비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싫어서 종종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화하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나라의 사람들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번 주에 나가서 화해의 대사가 됩시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읍시다. 모든 상한 사람들은 이 화해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분만이 영원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번 주에 나가서 우리의 왕을 섬기자!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짊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과 화해하고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화해의 대사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속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신 일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One Voice Fellowship